# 이모그래피 창시한 '書禪一如' 서예가

〈Emography〉



허회태 작가는… 상명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화 전공 석사 졸업했다. 서예 • 전각 • 한국화를 섭렵해 현대미술과 융합 • 접목한 새 장르 이모그래피(Emography)를 창시, ABC 및 FOX 등 해외 언론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카이로스 허회태미술관장, 연변대 미술대학 회화과 교수, 미술세계아카데미 이모그래피 지도교수, 예술의전당 서예아카데미 지도교수, 무산서예이모그래피 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이모그래피-허회태 書 · 畵 · 刻 예술 47년, 주독일한국문화원 초대개인전(이모그래피), 서화 아트페어 초대 개인전 등 다수의 개인전과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개관기념전 꼴라쥬, 여수 국제 아트페스티벌 한국현대미술의 동향전(갤러리연) 등 많은 단체전에도 참여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부문 대상, 원곡서예상 등 다수 수상했다.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빠옥 총림에서 생활 〈1〉

B5 문화
이명희 개인전 '자연을 품다'

B6 학술
통도사 세계유산 가치와 계승

산문 밖의 禪

## 서예가 허회태

(63 · 연변대학교 미술대 회화과 교수)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내가 문득 축시에 일어나 뜻하지 않게 글을 쓰고 싶어서, 잘 쓰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썼다. 날이 밝은 뒤에 살펴보니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았으나 속기(俗氣)가 없어서 제액(題額)을 달아 완성했다."

뜻하지 않게 쓰고, 잘 쓰려는 마음 없이 쓰고, 속기 없이 쓴다. 다시 정리하면 무의, 무욕, 탈속이다. 서예가 허회태의 서법이다. 그렇게 허회태의 '쓴다'는 붓의 흔적이 아니라 마음의 흔적이다. 그리고 그 흔적은 철저하게 불가적(佛家的)이다. 그는 그 불가적 서예를 '이모그래피(Emography)'라고 말한다. 오랫동안 불가적 시선과 마음으로 서예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그 확장으로 인해 다시 불법(佛法)에 깊어가는 서예가 허회태다.

### 운명이 된 붓

다섯 살이었다. 운명이었다. 어린 허회태는 붓 옆에 있었다. 아니 어느 날, 허회태 곁에 붓이 있었다. 다섯 살이 무엇을 알아서 붓을 잡았을까. 그리고 다섯 살이 잡은 붓을 '붓'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한 다섯 살이 붓을 쥔 것이 '운명'이라는 수사로 유난을 떨만한 일일까. 허회태가 서예가가 되지 않았다면 그 날의 붓을 '붓'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운명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섯 살 허회태가 쥔 붓은 '붓'이 되었으며, 다섯 살이 붓을 쥐게 된 일은 운명이라는 말이 유난스럽지 않게 되었다.

붓은 허 작가의 백부 허영재의 것이었다. 1957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허 작가는 집성촌에서 백부와 가깝게 살았다. 허 작가의 백부는 한학자였으며, 훈장이었다. 서당이 있는 백부의 집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책과 붓은 넉넉했다. '붓글씨'는 당연한 것이었다. 어린 허회태는 백부의 집을 드나들며 하늘 천, 땅 지를 읽기 시작했다. 하늘 天, 땅 地는 붓으로 써야했다. 다섯 살의 허회태는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하늘 천' '땅 지'를 붓으로 익혔다.

어느 날부턴가 허회태의 붓은 단순히 글자를 옮겨 적는 붓이 아니었다. '연필'이 아니었던 것이다. 어린 나이였지만 허회태의 붓은 점점 서체를 찾기 시작했다. 서체를 가지고 싶어 했고 서체를 지니기 시작했다. 백부는 알아봤다. 어린 조카에게 붓이 어울린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붓이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어린 조카는 백부의 글씨를 넘겨다보기 시작했고, 백부는 깊어가는 조카의 붓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백부도 다시 붓을 잡았다. 조카의 붓이 붓을 잡게 했다. 조카는 백부가 즐겨 쓰는 글씨를 따라 쓰기 시작했다. 백부의 글씨는 그 유명한 안진경체였다. 안진경체는 당나라 때의 서예가 안진경(709~785)의 서체로, 당대 이후의 서도(書道)를 지배했던 서체다. 안진경의 가문에서 만든 〈안씨자양(顔氏字樣)〉은 당나라 때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 동안 중국의 과거장에서 정체(正體)의 글씨로 쓰였으며, 명나라의 만력연간(萬曆年間 · 1573~1620)에는 간행된 서책의 대부분이 안진경체였다. 어느 날부턴가 다섯 살의 허회태는 안진경체를 쓰고 있었다.

### 빛나기 시작한 붓

"10년 공부…서예 최고상-허회태 군, 韓 · 加재단 주최 美展서"

열다섯 살이었다. 허회태는 빛나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이 신문에 오르기 시작했다. 순천 삼산중학교 3학년 허회태는 붓을 잡은 지 10년 만에 한 · 가(한국 · 캐나다) 문화재단 주최 제1회 전국학생미술작품전에서 1800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최고상(서예부문)을 수상했다. 그리고 그의 글씨는 캐나다에서 전시된다.

중학교에 진학한 허회태는 또 한 사람의 스승을 만난다. 이상호 선생님이다. 서예에 조예가 깊었던 미술 선생님이다. 선생님의 특별 지도를 받기 시작한 허회태는 3학년 때 제8회 전국서예대회(한국서예교육연합회 주최)서 첫 입상하고 연이어 최고상을 수상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크고 작은 대회에서 입선을 하기 시작했던 허회태였다.

수상은 값진 것이었다. 의미가 많았다. 허회태는 매달 서울에서 누나가 보내주는 4~5천원의 학비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허 작가는 매일 3~4시간씩 붓을 잡았다. 붓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종이였다. 화선지 한 장이 25원이었던 시절이었다. 허회태에게 화선지는 '금'이었다. 허회태는 지역의 국전입선작가들이 쓰고 남은 화선지를 얻어와 글씨를 썼다. 힘겨운 시간 끝에서 받은 상이었기에 기쁨과 의미는 남달랐다. 그리고 수상은 여러 가지로 스스로를 도왔다. 학비를 면제받았고, 고등학교 진학에도 큰 도움이 됐다. 허 작가는 서예특기장학생으로 진학했다. 그리고 수상은 이어졌다. 허 작가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그의 이름은 신문에 자주 올랐다.

**불가적 서예가의 길**

**5세 때 서예 입문**
**백부로부터 안진경체 사사**
**중교부터 큰 상 다수 수상**
**중3 때 캐나다 개인전 열어**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 대상**
**'반야심경' 2천 번 써**

1995년, 허 작가는 또 한 번 큰 상을 받는다.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서예부문 대상을 수상한다. 이옥봉의 시를 목간체로 썼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수상은 서예인에게 큰 상이다. 목간체는 종이가 발명되기 전, 서한시대에 나무 조각에 먹을 사용해 쓴 서체다. 허 작가의 대상 수상 이후 서예인들 사이에서 목간체가 유행하기도 했다.

### 새로운 서예, 이모그래피(Emography)

각기 다른 서체로 쓴 '佛' 자를 판넬로 이어붙인 8m 길이 대작의 제목은 '108 번뇌 불', 역시 8m에 이르는 커다란 '佛' 자 형상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억만겁) 작은 '佛' 자가 겹쳐져있다. 작은 '佛' 자가 모여 커다란 '佛' 자를 완성한다. 아크릴과 모래 등을 이용해 경주 남산의 불상을 형상화한 작품을 비롯해서 나옹선사, 서산대사의 시 서예작품과 반야심경을 새긴 전각, 도자기 등도 보인다.

2008년 10월 허 작가는 서예 인생 47년을 결산하는 전시를 열었다. 전시의 제목은 '이모그래피(Emography)'다.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렸던 전시는 서예와 회화의 경계를 허무는, 서예사에서 큰 사건이었다. 이모그래피란 감성을 뜻하는 이모션(Emotion)과 글씨나 화풍을 말하는 그래피(Graphy)를 합친 합성어다. 허 작가는 2005년부터 이모그래피를 시작했다.

B2면에 계속